

5000억짜리 거룩한 상상력, 신사옥 이전은 답정너인가

당장 내년 1월이라고 한다. 모색하고 있는 신사옥 부지 가운데 가장 빨리 다가오는 공모 신청일 말이다. 35년 목동 시대를 청산하고, 새 땅에서 새 사옥을 짓겠다는 게 <신사옥 추진본부>의 원대한 꿈이자 비전이다.

하지만 미래의 땅에 334명 조합원들은 아직 초대받지 못했다. 회사는 부지 공모 신청을 고작 보름 앞두고 지난 17일 신사옥 추진 진행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이제 막 신사옥 부지 정보를 접한 조합원들은 깊이 고민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

설명회 내용도 부실했다. 대부분은 공모에 나온 땅이 얼마나 훌륭한지로 채워졌다. 서울 시내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부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홈쇼핑 '매진임박' 문구를 보는 듯 손에 땀이 났다. 무조건 사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요동쳤다.

35년 전, 우리는 종로 5가에서 목동사옥으로 이전해 TV시대를 열었다. 450억의 빚이 있었지만 끄떡 없었다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의 계산기는 고장 난 것인가? 총사업비 5,000억 원 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3,200억 원의 대출. 매달 16억 원, 매년 200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종로 5가에서 목동으로 이전할 당시 450억 빚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다. 미디어 광고 시장이 고사해가는 현 시점에 매달 16억 원의 현금을 허공에 날리면서 어떻게 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70년을 이끌 CBS 문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빗더미에서 땀 흘리는 334명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사측은 이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2025. 12. 18.



전국미디어노동조합 C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